韓國心理學會誌:相談과 心理治療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4, *Vol. 6* No.1, 119-141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과 적응변인에 미치는 영향

박 애 선　이 영 희
(숙명여대 교육학과)

본 연구는 여성주의 시각을 가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기존의 집단상담에 비해서 여성주의 정체성 향상과 적응에 더 효율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위하여 588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검사,성역할 특성 검사, 스트레스 측정 검사, 그리고 자아존중감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자료를 토대로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즉, 수용성 수준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여성 내담자 40명 만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실험집단에서는 18시간의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Feminist Group Counseling Program:FGCP)이 실시되었다. FGCP는 성역할 분석을 중심으로 자신을 알아가도록 하였는데, 강의와 피험자들의 실습, 그리고 과제물을 내주는 것 등의 단계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FGCP의 목적은 기존의 성역할로 인해 형성된 자신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함으로서 여성주의 정체성을 향상시키고 적응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통제집단으로는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과 무처치 집단으로 구성하고 처치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설계는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GCP는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인간관계훈련)보다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었다. 둘째, 남성성이나 여성성 점수는 증가했지만 FGCP가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보다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의미있게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세째, FGCP는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보다 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을 의미있게 감소하거나 향상시키지 못하였다. 연구결과와 프로그램의 타당성등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여성주의 정체성이 향상시킨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시각에 좀 더 익숙하게 되면 여성이나 남성으로서의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겪게되는 갈등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앞으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성별 고정관념 없이 상담함으로써 내담자가 한 인간으로서의 적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은 한 개인이 자아실현을 도와서 적응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인간을 개발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응을 한다는 것은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것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역할에 대한 정체성과 적응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기존의 여성적

인 역할과 대비되는 남성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사회에서는 남성적인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여성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변화속에서 여성들은 더욱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 전문 상담기관을 찾게 되거나 좌절하게 된다. 전통적인 상담으로는 이런 여성 내담자 집단의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Worell(1980)도 '여성주의 상담'이라는 분야가 이제까지 여성들이 받아온 상담이론과 방법에 근본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하며 새로운 상담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Rickard(1989) 등은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에 따른 상담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여성 내담자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여성 내담자를 보다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여성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을 새롭게 재정의하고 자신의 문제가 사회체제에 의한 결과임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Galassi & Lemmon,1978; Worell,1980; Stiwell,1987; Good, Gilbert & Scher,1990)이라고 볼 때, 여성주의 상담의 목표는 여성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경험의 정당성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다(Gilbert,1980). 그러나 아직도 사회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 또는 남성 상담자들은 전통적인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수준에서 볼 때 '수용성'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여성 내담자가 성역할로 야기된 문제로 전문 상담기관을 찾게 될 경우에 상담자들은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의 시각을 가지고 상담하므로 여성 내담자들을 효과적으로 돕지 못한다. 따라서 여성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자들의 의식 변화와 효과적으로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근래에 성별을 지각시키는 성별 자각 상담(Good, Gilbert & Scher,1990)과 Life Direction Seminars Program 등이 여대생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정신건강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alsssi & Lemmon,1978; Worell,1980; Stiwell,1987). 여성주의 정체성은 여성과 남성을 서로 차별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Bargad 와 Hyde(1991)는 '여성연구'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 강좌를 들은 학생들은 '성'이나 '여성'에 관련된 과정을 계속 공부하려는 태도나 가치로 변화된다는 연구결과(Ruble et al.,1975; Richards & Wade,1977; Brush, Gold & White,1978; Vandavato & Vaughter,1980; Stake & Gerner,1987)도 있어 여성주의적인 접근이 여성주의 정체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성정형화된 정체성은 청년기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Erikson,1983; Kagan,1964; Mussen.1989)에 비하여 최근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성이 성격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서 인습적인 수준을 넘어 확장되야 한다고 주장한다(Block,1973; Hefner,1975; Massad,1978). 여성주의 정체성은 한개인이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자신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세계를 재 정의 함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여(Lichtenstein,1977) 각 성의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독특성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그 특성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주의 정체성의 확립은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과 통합하여 자신의 삶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feminist identity development:FID) 모형은 Cross(1971)의 모형에서 발전되어 Worell 등(1991)은 4단계로 전개하였다. FID모형은 자신들의 수용성 정체성을 초월하려는 여성들과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융집된 전체로서 통합하려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이념적 지평을 제시할 것이다. FID 모형은 4단계로서 각 단계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계 : 수용성(acceptance)
이 단계에서는 여성 자신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인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받아들이는데, 전통적인 역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낫다고 믿는다(Moreland,1976).

2 단계 : 폭로(revelation)
이 단계에서는 어느정도 전통적인 여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으로서 역할과 자신에 대해 회의를 가지며, 또 다른 특성으로서 모든 남성들을 부정적으로, 모든 여성들은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중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Knefelkamp, Widick, & Stroad,1975)

3 단계 : 새겨듦(embeddedness)
이 단계의 여성들은 여성센터나 여성연구과정들, 여성 지지집단 등을 통하여 새겨듦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고 (Avery,1977), 자신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성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유대는 그들에게 새로운 참 조체제와 정체성을 갖게 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분노를 표출 할 수 있게 한다.

4 단계 : 참여(commitment)
참여단계의 여성들은 여성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 그들의 개인적인 특질을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자아개념으로 통합 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은 사회변화를 위해 참여하며 창조적인 미래를 위해 성역할을 초월하게 되고 개인적인 만족, 효과적인 사회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표를 선택한다.

최근의 발달이론은(Loganbill, Hardy & Delworth,1982) 여성들이 이러한 단계를 재순환 할 때 마다 그 단계에서 더 깊은 도전을 경험하기도 하고 특정한 단계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전 단계로 퇴행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은 그들의 기술이 현재 생활의 스트레스에 대응하지 못할때 초기 단계로 돌아간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전하는 것은 여성의 준비성과 그녀의 삶에 있어서 독특한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같이 여성주의 정체성의 발달은 적응과 관련되는데, 먼저 성역할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청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는 유능한 여성상과 전통적인 성역할을 해야하는 수동적인 여성상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Chesler(1972)는 한 여성이 고정된 역할을 수용한다면 불행하고 우울하게 되어 불감증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면 공격적이 되거나 단호하게 되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남성도 사회에서 기대되는 성역할을 거부하면 심각한 정서불안정을 경험하게 되고 반대로 수용하게 되면 신

경중적이 되거나 한가지 역할에만 고정화 됨으로 불행하게 될 수 있다. Nickerson(1978)은 과거에는 여성의 정신건강을 촉진시키고 여성에게 도움을 베푼다는 전문인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상담하므로 여성 내담자들의 주호소에 진정한 공감을 하지 못하여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남성들은 사회체제가 남성 우월체제이므로 여성보다 어려움을 적게 받을 수 있으므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Jung(1969)에 의하면 인간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갖고 있는데 사회의 기대에 따라 어느 한 특성만을 개발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특성은 의존적, 수동적, 비공격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정체성의 일부분일 뿐이며 무의식속의 아니머스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주장적이고, 독립적이고, 논리적인 남성적 특성을 개발하게 된다고 한다. Bem(1974)도 한 개인이 두가지 특성이 다 개발되는 것을 양성성이라고 했는데, 양성성은 고도의 자기존경심, 도덕적 판단의 성숙도, 그리고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잘 적응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의 1 단계 여성들은 직장을 가지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아내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는 목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이렇게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을 다 잘 해내려는 여성을 슈퍼우먼(Superwomen)이라고 하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된다. 이 단계의 내담자들은 상황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문화가 여성에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스트레스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것은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연구(윤진, 1989: 정진경, 1989: 박애선과 이영희, 1992)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자존감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중반에 고조되었는데 이때 여성들은 과거 수십년간의 사회변화가 여성들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려는 집단상담들이 다양한 제목(의식향상훈련, 자기주장훈련, 자존감향상훈련)하에 연구 되어졌다. Sanford와 Danovan(1984)은 낮은 자존감은 여성들의 지위를 낮게 할 것임으로 집단상담을 통해서 자존감의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개인은 집단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태도를 개발하게 된다. 새로운 태도(Stere, 1985)는 자기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배우는 일, 자신의 일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는 일 등을 말한다. Downing과 Roush(1985)는 이러한 태도를 가짐으로서 개인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를 분리하는 힘을 갖게 되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높은 자존감과 정체성 발달의 높은 수준과는 의미있는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 내담자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 새로운 시각의 상담방법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실제 상담은 별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다행히 최근 상담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여성 내담자 집단들에 대한 연구(이영희, 1980; 백선욱, 1985; 한국여성개발원, 1985, 1987, 1988; 정소영, 1985; 이혜성, 1986)들이 간혹 이뤄지고 있고,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개발원 등의 발족 등으로 사회에서 항상 소외영역으로 남아있던 여성문제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잠재력과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 요구된다는 Rickard(1989)와 Worell(1992)의 주장에 근거하여 전통적 상담보다 여성주의 시각에서의 상담방법이 좀 더 여성 내담자에게 적합하다고 가정하고 여대생들의 여성주의 상담 프로그램이 전통적 상담 프로그램보다 여성주의 정체성의 발달과 적응에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피험자들은 2개 여자대학의 대학생 622명을 표집하여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검사, 성역할 특성 검사, 스트레스 측정 검사, 자아존중감 검사등을 실시하였는데 한 문항이상 응답하지 않은 피험자는 제외시켜서 5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수준에서 1 단계인 수용성의 점수가 높은 피험자 즉,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40명의 여대생들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16명과 인간관계 훈련집단(통제집단 1)에 8명, 무처치집단(통제집단2)에 16명을 무선할당하였다. 실험 집단과 인간관계 훈련 집단은 1회에 3시간씩 6회로 구성되었고 매회 끝나고 나서의 느낌을 다음시간에 제출하였다.

2. 측정도구

(1)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척도 (FIDS : Feminist Identity Scale) 내담자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Worell, Stilwell & Robinson(1991)의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수용(Acceptance), 폭로(Revelation), 새겨듬(Embeddness), 참여(Commitment) 등의 4가지 범주의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하위 요인들은 범주화 되어 있으므로 각 개인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단계에 따라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점수의 범위는 5-50점 이며 Acceptance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과 문화적 반감들을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폭로, 새겨듬, 참여 요인들의 점수는 높을수록 새로운 여성주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여성주의 정체성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76이었다.

(2) 성역할 특성 도구 (KSRI : Korean Sex Role Inventory)

정진경(1990)에 의해 제작된 한국형 성역할 검사는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Bem의 BSRI(Bem Sex Role Inventory)개발과정을 모델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이 도구는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을 나타내는 60여개의 성격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7점 척도로 되어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긍정적인 특성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 각각 남성적,여성적 특성으로 분류되며,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둘 다 중앙치보다 높으면 양성성 특성으로, 둘 다 낮으면 미분화 특성으로 분류되며 신뢰도는 남성성은 .89

이고 여성성은 .87 이다.

(3) 스트레스 측정 검사

원호택(1990)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검사는 총 117문항으로 3개 변인과 1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안 받는다"에서 "심하게 받는다"의 5점 척도로 되어있다. 각 문항 마다 5점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한 영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25-80점 이며 신뢰도는 .96 이다.

(4) 자아존중감 검사 (SEI: Self-Esteem Inventory)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검사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4. 5. 8. 10. 10. 14. 19. 20. 24)"와 "아니다(1. 2. 3. 6. 7. 9. 11. 12. 13. 15. 16. 17. 18. 21. 22. 23. 25)"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문항에 따라 "그렇다"와 "아니다"의 해당하는 곳에 "0"을 했을 경우 1 점씩을 주었다. 이 검사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서 모든 연령층에서 사용이 가능하며(Robinson & Shaver,1975) 신뢰도는 .87이다.

3. 처치집단

(1) 여성주의 집단상담 :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1회에 3시간씩 6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M.D.Galassi와 S.M.Lemmon (1978)의 7회의 Life Direction Seminar 집단과 C.E.Good의 L.A.Gilbert와 M.Scher(1990)의 Gender Aware Therapy의 프로그램을 참조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 여성주의 집단상담에 대해 설명하고 집단 구성원들간의 관계형성에 목표를 둔다.

2회- 자신의 고정관념을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다.

3회-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와 앞으로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대처 방법을 토론한다.

4회- 주장적 행동을 실습해 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5회- 집단원 개개인이 자신들의 강점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6회- 바람직한 자아상과 장기계획을 설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2) 인간관계 훈련 집단상담 : 여성주의 집단상담과 프로그램 내용이 유사하며, 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잘 하게 하는 방법을 훈련 하는데 촛점을 두었고,여성주의 집단상담과 비교하여 매회마다 여성적 시각이 덜 강조되었고, 3시간씩 6회로 구성되었다.

(3) 무처치 집단 : 이 집단은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중에서 수용성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학생들을 무선 선정하였고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4. 실험설계 및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처치한 집단과 인간관계 훈련집단, 그리고 무처치 집단간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

였다. 이 연구의 처치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설계는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며, 통계처리는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변량분석을 하고 있는데 공변량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평행성 검사를 하였다. 이것을 회귀분석모형의 식을 세워서 처치와 사전검사 점수가 상호작용 하는지를 봄으로써 자료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알아 보았다. 공변량 분석에서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면 contrast 방법을 사용하여 과연 어떤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 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수준의 수용성과 적응변인인 성역할 특성, 스트레스, 그리고 자아존중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먼저, 전체 피험자들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각 변인에 대한 점수의 기초 통계치는 표 1과 같다.

전체집단(N=588)의 각 검사에 대한 점수의 평균은 수용성이 2.187, 남성성이 3.924, 여성성이 4.396, 스트레스가 1.98, 자존감이 13.460이고 성역할 특성의 중앙치는 남성성=4.225, 여성성=4.550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포함된 피험자는 전체집단과 비교하여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아무런 갈등없이 기존의 사회구조를 받아들이므로서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낮은 미분화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높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점수의 분포를 보면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체로 모든 변인에 있어서 평균 점수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중간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분산에 있어서도 각 변인들의 분포가 편포를 나타낼 만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사전, 사후 검사 평균의 차이를 보면 수용성 점수에서는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남성성, 여성성, 자존감 점수에서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한편, 스트레스 점수는 사전, 사후검사에서 변화를 볼 수 없다.

다음은 각 특성별로 자료를 제시하여 해석

표 1. 전체 피험자들의 각 변인에 대한 통계점수

구 분	수용성		남성성		여성성		스트레스		자존감	
N	40		40		40		40		40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INIMUM	2.200	1.100	2.250	2.400	2.700	3.250	1.300	1.400	4.000	4.000
MAXIMUM	3.300	3.300	5.550	5.850	5.700	5.850	2.760	4.440	23.000	24.000
M	2.610	2.313	3.753	4.021	4.416	4.611	2.005	2.061	12.800	15.350
SD	0.22272	0.441	0.872	0.724	0.649	0.667	0.319	0.519	4.697	4.812

* 점수가 높을 수록 각 변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고자 한다. 이 특성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각 집단에 평균을 살펴본바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2에 의하면 처치를 받은 후 인간관계훈련 집단이나 무처치 집단보다 여성주의 상담 집단의 경우에 수용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인간관계훈련 집단과 무처치 집단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위와같은 점수의 차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변량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공변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회귀선의 평행성 검증(equal slope assumption)을 해야하는데 그 있음을 나타냈다.〈표3 참조〉 따라서 수용성 점수는 각 집단간에 차이가 없으리라는 영가설은 기각된다. 이것이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처치효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연히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낼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모집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수용성 점수는 인간관계훈련 집단보다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1-1]과 수용성 점수는 무처치 집단보다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 1-2]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후분석(post-hoc analysis)을 contrast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contrast의 행렬에 의한 muitipie comparison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2. 각 집단의 수용성 점수 통계치

구 분	여성주의 집단		인간관계 집단		무처치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15	16	8	8	16	16
MINIMUM	2.500	1.100	2.400	2.000	2.200	1.900
MAXIMUM	3.300	2.700	2.800	3.000	3.100	3.300
M	2.781	2.025	2.625	2.525	2.431	2.494
SD	0.240	0.423	0.139	0.341	0.244	0.353

결과 사전검사와 집단효과 사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처치와 사전검사가 상호작용 하지 않음으로서 영가설은 긍정되며, 각 집단의 회귀선이 평행성을 이룬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공변량 분석을한 결과, 사전검사 점수와 집단효과가 모두 그 변량에 있어서 변량분석 모델을 구성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G 1 : 여성주의상담 집단
G 2 : 인간관계훈련 집단
G 3 : 무처치 집단

표4의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훈련 집단과 실험집단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나내고 있다. 따라서 〈가설 1-1〉과 〈가설 1-2〉는 긍정되었다. 한편 인간관계훈련 집단과 무처치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표 3. 수용성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집 단	3.505	2	1.752	15.589*
수용성	1.328	1	1.328	11.811***
오 차	4.047	36	0.112	

* $p < .05$ *** $p < .001$

표4. 수용성 점수의 집단간 차이의 비교

〈G1과 G2의 비교〉

변량원	SS	DF	MS	F
가 설	1.986	1	1.986	17.666***
오 차	4.047	36	0.112	

〈G2과 G3의 비교〉

변량원	SS	DF	MS	F
가 설	0.083	1	0.083	0.736
오 차	4.047	36	0.112	

〈G1과 G3의 비교〉

변량원	SS	DF	MS	F
가 설	3.059	1	3.059	21.21***
오 차	4.047	36	0.112	

*** $p<.001$

그것은 수용성 점수가 여성주의 집단상담 처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인간관계훈련 집단과 같은 Placebo효과에 기인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처치를 받은 후의 여성주의 상담집단의 남성성 점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며, 다른 집단은 사전-사후 점수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회귀선의 평행선 검증의 결과 사전검사와 집단효과 사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6에서 보면 사전검사 점수와 집단효과가 모두 그 변량에 있어서 변량분석 모델을 구성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남성성 점수가 각 집단간에 차이가 없으리라는 영가설은 기각

표 5. 각 집단의 남성성 점수 통계치

	여성주의 집단		인간관계 집단		무처치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16	16	8	8	16	16
MINIMUM	2.500	2.400	2.250	3.350	2.300	2.700
MAXIMUM	5.500	5.250	5.200	5.850	5.550	5.300
M	3.716	4.028	3.525	4.100	3.903	3.975
SD	0.764	0.703	1.103	0.821	0.878	0.739

되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처치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연히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표 7의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 훈련 집단과 무처치 집단 사이에는 남성성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험집단과 인간관계 훈련 집단, 실험집단과 무처치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세 집단간에 차이가 없음을 가정한 영가설은 기각되지만, 이를 처치 효과(treatment effect)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남성성 점수는 여성주의 상담은 인간관계 훈련 보다 남성성을 더 향상시키지 못했다.

여성성 특성을 프로그램 처치후에 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8에 의하면 여성성 점수는 처치를 받은 후에 각 집단의 사전, 사후점수의 평균 점수가 약간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않다. 사전검사와 집단효과 사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각 집단의 회귀선이 평행선을 이룬다는 가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9이다.

표 6. 남성성 점수의 공변량 분석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집 단	0.878	2	0.439	3.415*
남성성	15.709	1	15.709	122.261***
오 차	4.626	36	0.128	

* $p < .05$ *** $p < .001$

표 9을 보면 여성성 점수는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사전,사후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여성주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인간관계 훈련이나 무처치보다 여성성 점수를 더 높이지는 못했지만 여성성 점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7. 남성성 점수의 집단간 차이의 비교

〈G1과 G2의 비교〉

변량원	SS	DF	MS	F
가 설	0.239	1	0.239	1.863
오 차	4.626	36	0.128	

〈G2과 G3의 비교〉

변량원	SS	DF	MS	F
가 설	0.849	1	0.849	6.664*
오 차	4.626	36	0.128	

〈G1과 G3의 비교〉

변량원	SS	DF	MS	F
가 설	0.291	1	0.291	2.262
오 차	4.626	36	0.128	

* $p < .05$

표 8. 각 집단의 여성성 점수 통계치

	여성주의 집단		인간관계 집단		무처치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16	16	8	8	16	16
MINIMUM	2.700	3.250	3.750	3.600	3.600	3.650
MAXIMUM	5.000	5.250	5.050	5.600	5.600	5.850
M	4.194	4.438	4.631	4.869	4.531	4.656
SD	0.670	0.609	0.446	0.632	0.679	0.729

스트레스는 프로그램 처치후에 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0에 의하면 각 집단의 평균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주의 정체성 향상 집단과 무처치 집단에서는 스트레스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인간관계 집단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 사전검사와 집단효과 사이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으로서 각 집단의 회귀선이 평행성을 이룬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

표 9. 여성성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집 단	0.103	2	0.051	0.231
남성성	8.302	1	8.302	37.243***
오 차	8.025	36	0.128	

*** $p < .001$

표 10. 각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통계치

	여성주의 집단		인간관계 집단		무처치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16	16	8	8	16	16
MINIMUM	1.580	1.400	1.520	1.470	1.300	1.470
MAXIMUM	2.760	4.440	2.280	2.500	2.680	2.740
M	2.046	2.186	2.038	2.006	1.948	1.963
SD	0.299	0.707	0.242	0.297	0.378	0.363

라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는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훈련과 같은 다른 집단상담 방법으로도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존감은 세 집단간에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1에 의하면 각 집단의 평균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자존감 점수는 여성주의 상담 집단보다 인간관계 집단에서, 무처치 집단보다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사전/사후 점수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약간 증가되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회귀분석 결과 처치와 사전점수의 상호작용이 없음으로서 영가설은 긍정되었으며,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주의 집단상담이 자존감

표 11. 각 집단의 자존감 점수 통계치

	여성주의 집단		인간관계 집단		무처치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N	16	16	8	8	16	16
MINIMUM	5.000	4.000	8.000	15.000	4.000	6.000
MAXIMUM	18.000	22.000	19.000	20.000	23.000	24.000
M	11.250	14.063	13.250	16.625	14.125	16.000
SD	4.025	4.851	3.732	2.066	5.488	5.621

점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훈련을 통해서도 자존감이 향상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무처치 집단은 심리학 계통의 강의을 수강한 집단이었음으로 평균점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상담자가 여성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과 성별 고정관념없이 내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내담자의 경우에 있어서 여성주의 시각을 가진 방법론적인 접근과 여성 내담자의 여성주의 정체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들의 적응을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여성주의 상담의 기본적인 과제로서 여성 내담자가 여성주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통한 여성주의 상담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즉,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 수준이 낮은 피험자들이 여성주의 집단상담에 따라 여성주의 정체성이 향상되며, 적응과 관련되는 변인인 성역할 특성 및 스트레스와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들에 대해서 가설 순서대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가설 1〉은 여성주의 상담 프로그램 처치후에 수용성 점수는 인간관계 훈련집단이나 무처치 집단보다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더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처치가 있는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인 인간관계 훈련집단과 무처치 집단 간에 수용성 점수의 차이를 보고자하였다.

처치후의 수용성 점수는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집단에 따른 수용성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내담자는 여성주의 상담집단과 인간관계 훈련 집단 간에, 그리고 여성주의 상담 집단과 무처치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인간관계훈련 집단과 무처치 집단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처치후의 수용성 점수는 다른 어느 집단에서 보다도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처치후에 수용성 점수가 낮아진 것은 인간관계 훈련같은 placebo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는 처치효과에 기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주의 정체성의 향상은 인간관계 훈련이나 무처치보다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서 더욱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처치후에 수용성 점수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여성연구 강좌를 이수한 대학생들이 통제집단에서는 사전, 사후점수에 변화가 없었지만 실험집단에서는 태도와 가치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Brush, Gold, & White, 1978; Ruble etal., 1975; Scott, Richards, & Wade, 1977; State & Gerner, 1987; Vedavato & Vaughter, 1980; Bargad & Hyde, 1991). 이러한 여성주의 개념에의 노출과 훈련의 효율성은 최근의 연구에서 더욱 탐색되고 연구되어졌다(Worell, Stilwell, & Robinson, 1991). 또한 여성과 관련된 주제와 내용들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은 여성주의 상담의 목적을 입증하고 (Robinson & Worell, 1991), FID의 여성주의 정체성 단계와 (Bargad & Hyde, 1991) 의미있게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성과 여성주의 시각이 혼합된 교과과정은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정체성과 여성주의 시각을 가진 이론과 연구들을 통해서 내담자들의 자각과 태도에 대한 영향을 다룰 필요가 있다. 수용성 단계의 여성 내담자는 자신들이 소속된 사회범주의 목표나 기대에 자신을 동일시 함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의 집단상담을 통해서 여성 내담자는 고정적인 성역할 사회화로 인한 자신들의 목표나 기대를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목표나 기대와 분리시킴으로서 자신들의 능력을 개발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설 2〉는 남성성 특성은 처치후에 여성주의 상담 집단, 인간관계 훈련 집단, 그리고 무처치 집단 사이에서 서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인데, 프로그램 처치가 있는 실험집단과 다른 프로그램 처치를 한 통제집단인 인간관계 훈련집단과 처치가 없는 통제집단인 무처치 집단간에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처치후에 남성성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주의 상담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제 집단인 인간관계훈련 집단에서는 처치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집단에 따른 남성성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간관계 훈련 집단, 그리고 여성주의 상담 집단과 무처치 집단 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주의 상담 집단의 내담자들은 인간관계 훈련 집단이나 무처치 집단의 내담자들 보다 남성성 점수가 의미있게 높지 않았다. 인간관계 훈련 집단이 여성주의 상담 집단보다 남성성의 점수가 더 증가한 것은 공감이나 배려가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보다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자신감을 갖고 표현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여성주의 상담 집단에서 평균점수가 증가했지만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여성주의 집단상담의 내용과 유사한 의식향상 훈련을 통해서 남성성 점수의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는다(Nickerson, 1974; Nickerson, Solomon, 1974; 정소영, 1985).

〈가설 3〉은 여성성 특성은 처치후에 여성주의 상담 집단, 인간관계훈련 집단, 그리고 무처치 집단 사이에서 서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인다인데, 처치후에 여성성 점수는 여성주의 상담 집단과 인간관계 훈련 집단 간에, 여성주의 상담 집단과 무처치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식향상훈련이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선행연구들(정소영. 1985; Baldwin, 1981; Follingstad, 1977; Eastman, 1983;Kravetz)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도 여성은 여성성을 지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성을 열등하게 여기고 그 특성을 향상시키려 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연구자가 여성주의 집단상담이나 인간관계 훈련을 진행하면서 경험하기도 한 사실이다.

〈가설 4〉는 처치후에 스트레스는 여성주의 상담 집단, 인간관계훈련 집단, 그리고 무처치 집단 사이에서 서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인데,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한 집단과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한 통제집단인 인간관계 훈련집단과 처치가 없는 통제집단간에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여성주의 집단상담은 스트레스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처치후에 스트레스 점수는 세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실험에 참가한 여대생들의 스트레스 점수가 평균보다 낮음으로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스트레스 주준이 낮기 때문에 어떤 처치를 한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더 적어질 가능성이 적었던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가설 5〉는 자존감은 처치후에 여성주의 상담 집단, 인간관계 훈련집단, 그리고 무처치 집단 사이에서 서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인데, 실험집단과 프로그램 처치가 있는 통제집단인 인간관계 훈련집단과 처치가 없는 통제집단인 무처치 집단간에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여성주의 집단상담은 자존감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존감 점수를 약간이나마 증가시킨 점에서 보면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Ballou, Reuter, & Dinero, 1979; Sanford & Donovan, 1984).

이러한 결과는 여성주의 집단상담이나 인간관계 훈련이 모두 자존감을 의미있게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은 자기표현을 하는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성성의 특성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므로서 구성원들은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것은 Enns(1992)의 자존감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의식향상과 자기표현 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용의 구성이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받은 집단에서도 자존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관계 훈련에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공감훈련 등이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표현을 하므로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받은 집단과 인간관계 훈련을 받은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주의 집단상담을 받은 집단과 인간관계 훈련을 받은 집단에서 남성성 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성성이 자아존중과 관계가 있다는 Spence와 Helmreich(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자존감이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자존감과 같은 특성은 단 기간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훈련을 하므로서 여성주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여성주의 상담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주의 상담의 접근방법은 우리나라의 상담자나 내담자에게 있어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므로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선 상담자들에게 받아 들여져야 하므로 여성주의 개념에의 노출과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연구일정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집단상담의 과정을 6회로 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주의 상담 프로그램의 매회 시간을 줄이고 전체 횟수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주의 집단상담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된 한 인간으로 교육시키는데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의 연구들에서는 특히 여성주의 상담분야에 있어서 양적 분석의 연구 보다는 질적 분석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강혜련 역(1985). Arnold S.Kahn & Paula J.Jean 여성심리학의 미래를 위한 제언, 〈**여성연구 논총**〉 창간호. 서울여대. 107.

김태련.이선자.조혜자 역(1989). **성의 심리학**, 서울: 이대출판부.

문은희(1983). **여성의 삶과 갈등세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현상과 인식〉 7권 3호.

박애선.이영희(1992). 기혼여성의 성역할 특성과 스트레스 자각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과 심리치료. 4권 1호**.

백선욱(1985). 여성상담에서의 새로운 접근을 위한 일 연구. 이대 **학생생활연구 21권**.

여성개발원(1985). **여성상담의 실제**. 교육자료 300-4. 서울: 여성개발원.

이근후(1979). **프로이드적 여성심리** 이해. 여성학. 이화여대출판부.

이영희(1982). 문화와 상담 : 문화지향적 상담을 위한 시론. **숙명여대 논문집 23집**. 119-143.

이영희(1985). "여성상담의 기초개념" **여성상담의 실제**. 여성개발원.

이재연(1983). 여자대학생의 장래계획과 성역할 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아세아 여성연구 22집**. 숙대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87-97.

이혜성(1986). 카운슬링 실습과정이 중년여성의 성별 특성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하 사례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이은순(1987). 여성상담과 여대생 문제. **학생생활연구**. 이화여대 학생생활지도 연구소.

윤진 · 최정훈 · 김영미(1989).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한국심리학회지, V.4,N.2.**

장세화.오은경 역(1983). 맥코비. **성차의 형성** 과정. 이화여대 출판부.

정소영(1985). 의식향상훈련이 여성의 양성공존성에 미친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정진경(1987).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5**, 82-92.

조 형(1993). 한국가족에서의 여성 : 주부의 삶을 중심으로. **한 · 중 여성의 지위**. 여성개발 원 p.159.

황순자 역(1987). **정신건강과 성역할**, 서울 : 형설출판사.

Ashurst,P. & Hall,Z.(1989). *Understanding woman in distress.* New York:Routledge.

Bargad,A. & Hyde, J.S.(1991). Women's student : A study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181-201.

Barnett,R.C.,Biener, L.,& Baruch, G.K.(1987). Gender & Stress. New York: The Free Press.

Bernard,E. & Jr.Whitley(1983). Sex role Orientiion and self-esteem :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logy, 44*(4), 765-778.

Bem,S.L.(1974). The Meaurement of psych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Bem.S.L.(1981). Gender Schema Theory : A Cognitive of Sex Typing. *Psychological Review, 883*, 54-364.

Brickman,J.(1984). Feminist, non-sexist, and

traditional model of therapy : Implications for working with incest. *Women and Therapy, 3*, 49-67.

Carter,B.(1989). Gender sensitive therapy :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 Family Terapy Networker, 13, 57-60.

Chambless,D.L., & Wenk, N.M.(1982). Feminist Vs. nonfeminist therapy : The cilint's perspective. *Women and Therapy. 2*, 57-65.

Chesler,P.(1972). Woman and madness New York : Doubleday.

Cohen,F., & Lazarus,R.S.(1983). Coping and adaptation in health and illness. In D. Mechanic(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 608-635. New York: Basic Books Inc.

Cook,E.P.(1985). Psychological Androgyny, New York: Pergamon.

Cook,E.P.(1990). Gender and psychological dietr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371-375.

Cross,W.E.(1971). Negro-to Black conversion experience: Toward a psychology of black libration. Black World, 20, 9, 13-27.

Deusch,C. & L.Gilbert(1976). Sex-role streotypes: Effect on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 and on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Cousulting Psychology*, XXIII/4, 373-379.

Dowing,N.E., & Roush, K.L.(1985). From passive-acceptance to active commitment: A Modem of feminest idenity development for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yist, 13*, 4, 695-709.

Eastman,P.C.(1973). Consciousness-raising as a resocialization for Women. Smith Collegy Studies in Social Work, XLIII/3, 153-183.

Enns,C.Z. Hackett,G.(1990). Comparison of feminist and nonfeminist Women's reactions to varients of nonsexist and feminis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 33-40.

Erikson,E.H.(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ycal Issues*, V.1, N.1 Monograph 4,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Erikson,E.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Good,G.E., & Mintz,l.b.(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y men: Evidence for compounded ric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 17-21.

Gilbert,L.Z.(1980). Feminist therapy. In A.N. Brodsky & R.T. Hare-Mustin (ed.), *Women and psychotherapy*: An assesment of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Good,G.E., Gilbert,L.A., & scher, M.(1990). Gender and therapy: A systhesis of feminist therapy anf knowledgy about gender.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376-386.

Greenspan,M.(1983). A New approach to women and therapy. New York: McGraw-Hill.

Hare-Mustin,R.T.(1983). An appraisa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psychotherapy: Eighty years after the case of Dora. *American Psychologist, 38*, 593-

601.

Kagan, J.(1975). The emergency of sex differences. In F. Rfbersky(ed.), Life: The Continuous Process. New York:Knopf.

Kaplan,A.G., & sedney,M.A.(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androgynous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Inc.

Lerner,H.G.(1988). Women in therapy. New York: Janson Aronson.

Marececk,J., & Hare-Mustin,R.T.(1987,March). Feminism and therapy: Can this relationship be saved? Paper presented at the mrrting of the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Washington,DC.

McNamara,K. & Rickard,K.M.(1989).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Implication for feminist therapy with wom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 3/4, 184-189.

McBride,A.B.(1990). Mental health effects of womens multiple roles. *American Psychologist 45*. 381-384.

Marcia,K.E., & Friedman,M.L.(1970).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e women. *Jurnal of Personality, 38*, 259-263.

Miller,J.B.(1976).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oston: Beacon.

Rheem,S.B.(1993). Variables related to career success: Korean-American women of distinction tell their stories. Northern IIlinois University.

Rickard,K.M.(1987). A model of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Women in Psychology, Denver, Colorado. March.(in review). The effect of feminist identity level on gender prejudice toward artist's illust ation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Rickard,K.M.(1989). The relationship of self-monitered dating behaviors to level of feminist identity on the identity scale. *Sex Roles, 20*, 3/4, 213-226.

Scher,M. & Good G.E.(1990). Gender and counsel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 What does the future hold?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3/4, 388-391.

Tait,L.M.(1989). Coping patterns of aging women :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Haworth Press, Inc.

Tinsley,H.E.A., & Tinsley ,D.J.(1989). Reinforcers of the occupation of homemaker lifecicy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89-195.

Verbrugge,L.M.(1983). Multiple roles and physycal health of women and me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ur, 24*, 16-30.

Warter,A.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 og theory and review of reserch. *Development Psychology, 18*(3), 341-358.

Whitley,B.E.(1983).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 analytic, 44, 765-778.

Worell,J.(1980). New directions in counseling wome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March, 477-484.

Worell,J. & Remer,P.(1992). Feminist perspectives in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The Effect of Feminist Group Counseling on Identity Development,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Adjustment of Women's College Student.

Ae Sun Park Young Hee Lee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stimate that applicability of FGCP(Feminist Group Counseling Program) affect more effectively the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a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588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women's college students and went through Feminist Identity Development Measure, Sex Role Charactistics Measure, Measure of Stress Revel, and Self Esteem Measure,Based on inquiry, the subjects of analysis were limited to female acceptances who have long performed customary sex roles, 40 students with the higher average marks.

In this experimental group, the FGCP of 18 hours, consisted of lecture,client's activities and assignments, and focused on the self awareness through sex role analysis. The aim of this FGCP is to notify clients to be aware of true self in the self which is domesticated by traditional sex role and thus to be closer to identity development. Randomized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was used to test the treatment effect on the ground of the verification of FGCP's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this thesis run as follows. First, FGCP was more effective than Human Rationship of Training Group (HRTG) in developing feminst identity of women's college students. Second, FGCP did not make more effective altrations than HRTG on masculinity or feminity, and the increase of femine scores showed that female students had difficulties in coping with sex role problems. Third, FGCP more effectively neither decreased the stress, nor increased self esteem than HRTG. As a results, it is assumed that female college student on the traditional view of the female, perceived the feminism to be such a new impact, the stress. Inspite of the limits of the validity of the program, the improvement of feminist identity through FGCP informed that the conflicts from the fixed ideas of sex role can be lessened. In this respect, the FGCP applied in this research may be conceived to contribute towards the adjustment of female clients to the better lives as human beings

(부록)

여성주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Feminist Group Counseling Program : FGCP)

[1회 상담]

1. 목적 : 여성주의 집단상담에 대해 설명하고,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형성에 목표를 둔다.

2. 내용

1) 강의

- 상담자가 이러한 집단상담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FIRGC의 성격, 필요성, 목적을 알려주고 상담자 자신의 소개를 한다.
- 집단상담의 성격과 지켜야 할 점 : 비밀보장, 시간엄수, 자기노출, feedback.

2) 자기소개

- 집단원들이 각각 돌아가며 먼저 사람의 이름을 반복하고, 먼저 사람이 소개한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반복한 후에 자신의 소개를 한다.
- 처음 만난 소감과 집단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말한다.
- 상담자는 집단원들 자신의 소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feedback 하고 특히 여성적 특성을 얘기한 면에 촛점을 둔다.
- 집단원들이 다른 사람의 소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했는지 feedback 하는 시간을 가진다.

3) 자신이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기

- 부모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과 내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한다.(feedback)
- 집단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고 각자가 집단에 대해 단기간의 목표를 세운다.
- 각자가 세운 단기간의 목표가 실천가능한 것인지를 토론한다.

4) 오늘 집단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다.

5) 숙제

가 :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해서 10개 이상 적어오기.

나 : 최근에 여성과 관련되어 출판된 책이나 공연되는 연극을 알아보기.

[2회 상담]

1. 목적 : 나의 고정관념을 알아보고 그것이 어떤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살펴본다.

2. 내용

1) 강의

- 고정관념과 사회화과정에 대해 설명해 준다.

2) 남녀의 차이에 대해 발표하고, 숙제를 하면서 어떤 느낌과 생각을 했는지를 표현한다.

3)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므로 응답한다.
가. 나는 형제중에서
나. 나의 성격은
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의 역할은
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여성의 역할은
사. 나의 장점은
아. 나의 단점은
자. 나는 ( ) 여자가 좋다.
차. 나는 ( ) 남자가 좋다.
카. 나의 배우자는 ( ) 하다.
타. 나는 앞으로 ( ) 하며 살고 싶다.
4) 각자가 기록한 것을 보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관련지어 토의한다.
5) 집단원들은 출생에서 현재까지 그들에게 의미있게 영향을 준 사람, 사건, 장소들을 연령별로 상담자가 준비한 큰 종이에다 life-line poster를 만든다. 집단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살아온 생활들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격려받고 feedback을 주고 받는다. 특히 성차별로 인한 영향을 분리하여 얘기한다.
6) 오늘 집단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다.
7) 숙제 : 자신이 가진 성역할 고정관념 중에서 고치고 싶은 것을 실천하기.

[3회 상담]

1. 목적 :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와 앞으로 직장생활이나 결혼생활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살펴보고 대처방법을 함께 토의한다.
2. 내용
1) 강의
- 주장적행동과 비 주장적행동의 차이점을 강의한다.
-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장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한다.
2) 2회의 숙제 중에서 실천한 것과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얘기한다.
3)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다.
4) 남녀의 고정적인 역할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해 얘기한다.(feedback)
5) 대처방법을 토의한다.
6) 오늘 집단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다.
7) 숙제 : 한가지 이상 비 주장적으로 행동한 사례 적어오기.

[4회 상담]

1. 목적 : 주장적행동을 실습해 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2. 내용
 1) 강의 : 여성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한다.
 2) 부모, 친구, 선배, 후배, 이성친구와의 대인관계에서 여성이기때문에 비주장적으로 행동한 사례를 발표한다.
 3) 집단원 중에서 2사람씩 한조가 되어 주장적 행동을 실습해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찰하여 feedback 해준다.
 4) 오늘 집단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다.
 5) 숙제 : 자신의 강점(strengths) 5개 이상 적어오기.

[5회 상담]

1. 목적 : 집단원들이 각자에 대해 장점을 얘기해 주므로써 자신의 강점(strengths)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2. 내용
 1) 자신의 강점을 적어보고 발표한다.
 2) 강점을 적고 발표하면서 느낀점을 표현한다.
 3) 한명에게 집단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강점을 얘기한다.
 4)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얘기해줄 때 느낀점을 표현한다.
 5) 오늘 집단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다.

[6회 상담]

1. 목적 : 바람직한 자아상과 그것을 위한 장기계획을 설정한다.
2. 내용
 1) Life Style 이란 말을 설명한다. : 개인이 매일의 생활을 살아나가는 양식이나 주제이다.
 2)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지원의 원천, 일과 여가선용에 대해 간략하게 토론한 후에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Life Style을 기술한다.
 3) 두가지 다른 Life Style에 대해 feedback하고 자신의 Life Style을 기술한다.
 4) 자신들의 바람직한 자아상에 대해 적어본다.
 5) 집단상담 초기에 세웠던 단기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접했던 장애물을 어떻게 다루었고 목표를 성취하는데서 겪었던 성취감을 표현한다.
 6) 단기목표와 관련하여 장기계획을 설정한다. 장기계획은 일년 내에 성취될 수 있는 목표로서 정의된다.
 7) 이제까지 집단상담을 하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된 것에 대해 표현한다